

특집 타자들의 장소

##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공간

‘배제된 이들’이 만들어어나가는 대안 공간들\*

LGBTQ Youth and Safe Space:  
Alternative Spaces Created by the Excluded

정성조\*\*, 정용림\*\*\*

본 연구는 학교 공간에서 비가시화된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 바깥에서 어떻게 안전공간(safe space)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이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시도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퀴어 안전공간의 의미를 탐색한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 교실에서 혐오 발언, 차별,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인 교사와 상담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로부터도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면서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믿거나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또래 성소수자들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얻고, 나아가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나 동아리라는 안전공간을 직접 만들어어나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 2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교, 온/오프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의 경험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지, 학교 바깥의 여러 안전공간을 어떻게 발견하며 그곳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안전공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대안적인 안전공간을 꾸리고자 어떠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편으로 배제와 소속감이라는 관점에서 퀴어 안전공간이 커뮤니티 만들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공간을 ‘제공’하는 것

\* 이 논문은 사회 가장자리 청소년 학술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김현주·노자은·정성조·정용림(2020).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중 청소년 성소수자 대상의 질적연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유용한 코멘트를 주신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의 연구자 및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9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A02098685).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주저자, demonicsj@gmail.com).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sungc93@gmail.com).

을 넘어 학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적 영역을 퀴어 안전공간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주요어: 성소수자, 소속감, 커뮤니티 만들기, 청소년 성소수자, 퀴어 안전공간, 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학교 공간에서 배제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 바깥에서 어떻게 안전공간(safe space)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이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시도 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퀴어 안전공간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때 안전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Hartal, 2017: 4).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넘어 “자기의심, 적대감, 두려움, 긍정의 부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리적 단위에 관한 탐구가 안전공간이라는 문제의식에 담겨 있는 것이다(박수경, 2022: 81).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공간에서 주류적인 규범과 질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고 경험하는지, 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안전공간의 형성과 그 함의를 파악하는 데서 핵심이 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안전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 가운데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개입되는 지점에 주목한다. 이는 성적인 것(the sexual)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게 한다. 미셸 푸코(2010)는 성에 관한 담론이 공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18세기 중등학교를 언급한 바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표면적으로 성에 관한 언급이 지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곳의 공간적 배치는 물론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바로 청소년의 성생활이라는 것이다(푸코, 2010: 33). 퀴어 연구자들은 나아

가 흔히 성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공적 영역이 그 사회적 관계를 이성애로 전제하면서 사실상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해 왔다(브라운·브라운·림, 2018). 지배적인 성적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인 성소수자는 이러한 공적 공간에서 성 정체성이 드러날 때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규범과 협상하는 여러 노력을 강요받게 된다.

학교는 여러 공적 영역 가운데 특히 젠더 및 섹슈얼리티 규범의 재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간이다. 오랫동안 학교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배적 규범을 재생산하는 역할로 주목받아 왔다(알튀세르, 2007; 윌리스, 2004). 이때 재생산되는 지배적 규범에서 이성애규범성과 동성애혐오는 주요한 축을 이룬다(Pascoe, 2011; Payne and Smith, 2012). 예컨대 C. J. 파스코(Pascoe, 2011)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행한 에스노그래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이 성적인 규범에 따라 분할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공간이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을 이성애화(heterosexualize)한다고 주장한다. 윈터볼, 랠리, 연극, 무용, 점심식사 등은 대개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드라마 수업이나 GSA(Gay-Straight Alliance) 등은 호모(fag)들의 공간으로, 자동차 정비소와 체력단련실은 남성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Pascoe, 2011: 21). 공식적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 대화, 행위 등이 이미 이성애적인 각본을 따르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소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과 상호작용, 공간적 분할을 통해 성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즉,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혐오발언,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4;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 2016; 2021), 정체화 과정이나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강병철·하경희, 2012; 박지영, 2020; 주재홍, 2017).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자신이 있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집과 학교를 벗어나면 ‘탈학교’, ‘탈가정’이라는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붙게 된다(김시은, 2017; 정용림, 2021). 즉,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공간은 교육권,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들의 일상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 논의가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은 15년이 지난 아직도 이른바 ‘사회적 합의’라는 또 다른 차별에 가로막혀 있다. 지역자치단체별 학생인권조례나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차차 포함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매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도 밖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노력으로는 2015년부터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지원해 온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땡’(이하 ‘땡땡’),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팀 드림캐처’(이하 ‘드림캐처’)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탈가정, 탈학교 청소년들은 이러한 단체를 통해 생존의 자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대부분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를 어떻게 포괄적인 안전공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queer 안전공간의 의미를 탐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지,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안전공간을 어떻게 발견하며 그곳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안전공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살펴본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퀴어 안전공간이 갖는 정치적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 1) 한국 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내적 경험 및 표현 방식과 관련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그리고/또는 정서적·성애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과 관련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의 측면에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를 의미한다(김지혜, 2016: 160). 출생 시 의학적으로 지정받아 법적 성별의 토대가 되는 지정성별(assigned sex)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과 일치하는 자를 시스젠더(cisgender), 나와 다른 성별에 정서적·성애적 끌림을 느끼는 자를 이성애자라고 할 때,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사회적 체계로서 성별이분법(gender binary)을 거부하는 젠더퀴어(genderqueer) 또는 논바이너리(non-binary)는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정체성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림을 느끼는 양성애(bisexual), 성별과 상관없이 끌림을 느낄 수 있는 범성애(pansexual), 동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동성애(homosexual) 등은 성적지향과 관련된 정체성이다. 이를 포괄하여 영미권에서는 ‘LGBTQ’, ‘퀴어(queer)’ 등으로 부르는데, 이때 퀴어는 일상적인 정체성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정치적 실천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시화되어 있으며, 가족과 학교 등에서 청소년이자 성소수자로서 이중의 취약함을 경험하고 있다. 2017년 서울특별시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에 의하면 13.3%의 응답자는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2.7%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었다(여

성신문, 2017.12.13.). 그러나 청소년기를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만한’, ‘공부에 집중해야 할’, ‘성인이 되면 생각이 바뀔’ 미숙한 시기로 보는 관점에서, 성소수자 정체성 또한 잠시 스쳐 지나갈 고민이나 혼란으로 여겨지곤 한다. 많은 성소수자가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고, 정보와 자원들을 찾아 자기 확신을 다져간다는 점을 볼 때, 이 시기에 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지지와 환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의 발전으로 청소년 성소수자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더욱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성소수자로의 정체화가 갖는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Jones, 2018; Jones, 2022).

그러나 2014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98.0%는 교사나 또래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었으며, 20.0%는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모욕을, 54.4%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러한 혐오폭력과 괴롭힘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 훨씬 심각한데,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었고, 32.6%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같은 조사에서 15~18세 청소년 트랜스젠더 중 21.2%는 학업 중단 경험이 있었고, 13.6%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학교에서 마주하는 차별적 대우’(68.6%)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서울신문, 2021.12.21).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지원 체계 또한 하나의 장벽이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문제로 상담한 경험은 11.6%에 그쳤으며, 상담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77.5%로 가장 많았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13).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과 명동이 요청하여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지원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가운데 지난 5년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진행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경향신문, 2021.10.21). 결국, 학교와 청소년 지원기관 등 청소년 성소수자가 살아가는 주된 사회적 공간은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차별과 괴롭힘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2) 퀴어 안전공간과 학교

지리학에서 말하는 공간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구성하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 구성되는 자리이다(Bondi and Rose 2002; Skeggs 1999). 페미니스트들은 이 자리에 사회적 권력 관계를 기입하며 공간, 장소 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왔다. 예컨대 안락한 휴식, 친밀성, 애착의 뿌리를 상징하는 ‘집’은 “가부장제,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곳”으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다(McDowell, 1983; McDowell and Massey, 1984; 신유진, 2021: 61에서 재인용). 특히 성소수자에게 가족과 집은 정체성을 숨긴 채 항상 긴장과 불안을 안고 지내야 하는 곳이다(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2021).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학교 역시 성소수자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일반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Ferfolja and Ullman 2017; Hill et al. 2021; MacAulay et al. 2021; McBride, 2021).

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나누고, 사회 변화를 위한 의식을 구성했던 1970년대 이래 서구의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 속에서 ‘안전공간(safe space)’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Karin and Marie, 2019: 276). 이후 대학 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여러 실질적인 정책들, 또 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다양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노력으로 확장되었다(Karin and Marie, 2019: 276).

하지만 ‘안전공간’은 특히 다양성에 대해 오래 숙고해 온 사회적 맥락에서는

다소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교실이라는 ‘아고라(agora)’ 속에서 관점의 차이와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배우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 보는 주장이 한편에 있다면(Boostrom, 1998; Karin and Marie, 2019: 278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그 과정 안에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점에서 ‘안전 공간’은 본질적으로 딜레마와 긴장을 가진다(Karin and Marie, 2019: 280). 이를 요약해 캘린(Callan, 2016)은 모든 인간이 가진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존엄 안전성(dignity safety)’과, 논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적 안전성(intellectual safety)’ 개념을 구분하기도 했다.

하나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고,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포함되는 것조차 무수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경향신문, 2021.1.25.).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심지어 괴롭힘과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존엄 안전성’이 모든 공간의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때의 안전공간은 이미 구성된 공간이라기보다 타자(other)를 환대한다는 사회적 약속에 가깝다(Palkki and Caldwell, 2018: 29). 결국 교실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안전함은 위에서 부여하는 무언가라기보다, 행위자가 느끼는 해방감, 조직적 실천들, 그리고 학교 환경의 에토스”에서 발현되는 것이다(Benjamin, Salonen, Gearon, Koirikivi and Kuusisto, 2021: 7).

이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행위자로서 학교의 규칙, 교직원의 조치 등이 공간의 맥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앨버타 주에서 2016년 발행한 「최선의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Best Practices: Creating Learning Environment that Respect Diverse Sexual Orientations, Gender Identities and Gender Expressions)」, 캐나다에서 2015년 발간한 「LGBTQ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교사 프로젝트(The Every Teacher Project on LGBTQ-inclusive Education in Canada&s K-12 Schools: Final Report)」 등이 그 사례로, 많은 지역에서는 교실 환경이나 학습 내용, 교사-학생 관계 등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안전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



회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포용적인(inclusive) 학교 환경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정신건강, 전반적인 안녕(wellbeing)을 향상시킨다(Kosciw et al. 2020; Robinson and Ferfolja 2002; Shannon 2016). 우리나라에서는 김지혜(2016) 등이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서 “변혁적·성찰적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반차별, 인권 교육에 대한 제도권의 고민이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성찰로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3) 안전공간으로서 커뮤니티 만들기

사회의 편견과 혐오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성소수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신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소속감,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이성원·연구진, 2020: 642). 예를 들어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에 참여한 청년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연구한 김지은(2020)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소속된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커뮤니티가 성소수자를 ‘부재의 장소’에서 ‘존재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수자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김지은, 2020: 170). 즉, 안정감과 해방감, 지지기반, 나아가 연대의 기반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일종의 안전공간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한 한국 사회의 사정을 생각해볼 때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은 오히려 이례적인 경험이다. 여전히 많은 중고등학교와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전히 많은 공적 영역이나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드러내고 형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길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안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일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주변화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연결 공간(spaces for connection)으로 기능하며(Hiebert and Kortés-Miller, 2021: 3), 이는 현실 관계의 자원이자 확장이며 관계 맺기의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과 확장에 PC통신과 인터넷 카페의 출현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강오름, 2015; 김지은, 2020; 정경운, 2002), 고립된 이들에게 일종의 ‘해방구’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LGBTQ 청소년들이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지지 기반을 얻는 곳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Bates et al., 2020; DeVito et al., 2018; Hiebert & Kortés-Miller, 2021; Lucero, 2017; Saha et al., 2019; McInroy et al., 2019; Schmitz et al., 2020). 이렇게 온라인 공간을 통해 형성하는 커뮤니티는 단지 오프라인에서의 차별과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공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소속감과 연대감, 자긍심 등의 자원과 지지 기반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다시금 오프라인에서 안전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의 안전공간에 관한 논의는 오프라인 공간 유기적인 관계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 국내에서는 공간/장소와 섹슈얼리티를 관련짓는 이론적인 논의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다. “도시공간의 주체는 무성적, 혹은 이성애(가속)적 존재로 획일화되었으며, 비규범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몸들은 또다시 공적 논의에서 주변화”되었다고 본 김현철(2015: 15)의 비판은 현재로서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 안전공간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이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종로3가나 이태원 등 상권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공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남수정, 2020; 이창환·조현민, 2020; 한유석, 2013), 성애화된 공적 영역 및 도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분석한 연구(김현철, 2015; 조수미, 2019; 홍예륜, 2019), 온라인 공간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연구(정경운, 2002; 강오름, 2015),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형성과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김지은, 2020; 손소연·이지하, 2016); 성소수자 배제적인 공간에서의 성소수자 경험과 실천에 대한 연구(임유경, 2016; 정성조·이나영, 2018) 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의 공간 경험과 실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비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 경험 및 안전공간 경험, 그리고 이들이 실천해 나가는 안전공간 만들기의 의미를 분석했다.

### 3.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공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안전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어나가는지, 나아가 이러한 실천이 공간의 타자성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심층면접을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는다.

심층면접은 2020년 2월 13일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총 25명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기관인 드림캐처의 협조를 통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가운데 연구 참여 의향이 있는 이들을 모집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으로 면접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기관 등의 자원이 아직까지 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커뮤니티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온라인 소셜미디어 홍보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5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모집 방법은 학교 바깥에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경험

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2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이때 성인에 해당하는 면접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교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2017년 ‘땡땡’이 시작한 청소년 성소수자 아웃리치 프로그램 ‘땡땡포차’, 2018년에 처음 개최된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혐오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계기와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이러한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면접참여자가 현재 시점에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도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여러 활동을 했던 이들을 다양하게 면접참여자로 포함하고자 했다. 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기관인 드림캐처 이용자 가운데 모집한 연구참여자 중에도 후기청소년, 즉 20대 초반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sup> 이는 10대 초중반의 많은 경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성 또한 떨어진다는 점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면접의 주요한 내용은 청소년 시기에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로서 마주한 포용과 배제의 경험, 그리고 학교 바깥의 온/오프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은 정체체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학교·가족 등 현재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청소년기관 또는 서비스 이용 경험 등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면접참여자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은 연구참여자가 개개인이 서술형으로 응답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표에 입력하였다.

심층면접 시작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참여자가 보

4) 땡땡의 2021년 상담 및 위기지원 결산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땡땡에서 상담을 진행한 성소수자 119명 가운데 16세 이하는 14명(11.8%), 17~19세는 50명(42.0%)이었으며,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20~24세가 55명(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 번호 | 성별정체성        | 성적지향              | 만 나이 | 거주지역 |
|----|--------------|-------------------|------|------|
| 1  | 논바이너리        | 범성애자              | 19   | 서울시  |
| 2  | 시스젠더 남성      | 호모로맨틱 호모섹슈얼(게이)   | 19   | 대전시  |
| 3  |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 폴리로맨틱 폴리섹슈얼       | 17   | 경기도  |
| 4  | 여성           | 레즈비언              | 19   | 경기도  |
| 5  | 시스젠더 여성      | 팬로맨틱 호모섹슈얼        | 19   | 경기도  |
| 6  | 남성           | 동성애자              | 20   | 서울시  |
| 7  | FTM 트랜스젠더    | 바이섹슈얼             | 21   | 서울시  |
| 8  | 시스젠더 여성      | 레즈비언(데미로맨틱 데미섹슈얼) | 25   | 경기도  |
| 9  | 논바이너리(보이플렉스) | 팬로맨틱 팬섹슈얼         | 13   | 경기도  |
| 10 | 남성           | 동성애자              | 18   | 서울시  |
| 11 | 젠더퀴어         | 남성애자(바이섹슈얼)       | 18   | 경기도  |
| 12 | 시스젠더 여성      | 폴리로맨틱 바이섹슈얼       | 20   | 경기도  |
| 13 | 시스젠더 여성      | 레즈비언              | 22   | 경기도  |
| 14 | 논바이너리        | 호모플렉시블 바이섹슈얼      | 23   | 서울시  |
| 15 | 여성           | 범성애자              | 18   | 서울시  |
| 16 | 시스젠더 여성      | 호모플렉시블            | 18   | 전라도  |
| 17 | 여성           | 양성애자              | 16   | 경상도  |
| 18 | 젠더플렉스        | 범성애자              | 18   | 인천시  |
| 19 | 시스젠더 여성      | 레즈비언              | 23   | 경기도  |
| 20 | 논바이너리        | 팬섹슈얼              | 23   | 세종시  |
| 21 | 퀘스처너리        | 남성애자              | 25   | 경기도  |
| 22 | 시스젠더 여성      | 레즈비언              | 17   | 대구시  |
| 23 | 남성           | 게이                | 21   | 부산시  |
| 24 | 트랜스여성        | 범성애자              | 23   | 부산시  |
| 25 | 트랜스젠더 여성     | 범성애자              | 22   | 서울시  |

호발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sup>5)</sup> 심층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녹음한 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의 분석에는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는 심층면접을 통해 생산한 텍스트

트에서 특정 단어나 주제, 개념을 확인하고, 범주를 활용하여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플릭, 2009: 341).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배제된 이들’과 ‘청소년 성소수자가 실천하는 안전공간’이라는 두 가지 범주와 다섯 가지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다.

#### 4. 학교 공간에서 배제된 이들

##### 1) 감추기: 학교 공간에서 살아남기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 있으면 자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라 아메드(2019: 77~78)는 “주변에 존재하는 느낌”과 “주변을 둘러싼 영향력”으로 경험되는 “분위기”가 일종의 형태를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단지 어떤 공간에 걸어 들어가기만 해도 그 공간에 존재하는 느낌과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다(아메드, 2019). 학교 교실은 규범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질서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페미니스트나 퀴어 등 ‘정서이방인’은 규범적인 공간에서 통용되는 유대를 방해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된다(아메드, 2019: 124~125). 가령 ‘커밍아웃’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남다른 젠더 표현은 이러한 정서이방인의 실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자원이 부족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위협이 예상되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unsafe space)’에서는 결국 나를 감추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즉,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나’를 숨기는 것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

---

5)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1041078-201912-HR-373-01).

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자애들끼리 너무 친하게 다니면 “재네 레즈래” 이라는 거. 남자애가 남자 연예인 좋아하면 “재 게이야.” “너 게이냐?”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은 “회개하라”. 퀴어퍼레이드 사진 같은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혐오스럽다”고 하고. …… 주변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개네들한테는 커밍아웃을 안 하죠. 안 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_ **연구참여자 13,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2세**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꼈구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 다른 기독교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자유로운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예배에 참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혐오발언들 같은 거를 들어야 된다는 게 불편했죠. \_ **연구참여자 7, FTM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21세**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학교는 흔히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경험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축적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 아메드(2019: 151)는 “‘무엇이 아님’에 대한 의식은 자기소외를 수반한다”면서 “만약 당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흐려진다면 당신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이방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당신을 향한 폭력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변 친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들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과 “소외감”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성소수자가 이상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 공간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히는 행동은 물론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제지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성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나 폭력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 연구참여자는 “네 옆에 퀴어 있다. 말 조심해라”라고 마음속

으로만 소리친 날을 기억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과 혐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분위기를 깨”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침묵하곤 한다.

교내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적인 분위기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문제 제기를 막 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 받을까 봐도 있고. 워낙에 그게 주류적인 좀 분위기여서. …… 희화화하는 농담들. 사실 주류적인 분위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고 한다는 게 뭔가 좀 분위기를 깨버리는 건 아닐까. \_ 연구참여자 10, 남성 동성애자, 18세

사실 청소년이란 게 어쨌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공동체라는 게 사실 집단에서 또 집단이 있고 이러잖아요. 학교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A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면 그게 또 B 학교로 퍼지고, B 학교에서 퍼지면 또 C 학교로 퍼지고 점점 퍼져나가요.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이게 무서워서. \_ 연구참여자 11,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18세

학교 공간은 모든 구성원을 시스젠더이자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동시에 그러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Grant et al, 2021; Pascoe, 2011). 한국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특히 여성)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이)성애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 문제’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노력하는 이중적인 보수적 성 담론이 존재하는데, 이때 성소수자 학생은 언제나 그 “존재가 지워져”(연구참여자 2, 시스젠더 남성 게이, 19세) 있다. 이는 ‘단지 문화적인’ 것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다. 김지혜(2016: 95)는 성소수자의 개념이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전형적인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많은 선행연구는 학교에서 펼쳐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주된 가해자가 동료 학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괴롭힘과 차별을



교사들이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강화한다고 지적한다(Beasy, Grant and Emery, 2021; Dragowski et al. 2016; Lapointe, 2015).

많은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경험한 아웃팅, 따돌림,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았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학교 전체에 아웃팅된 연구참여자 1의 경우 교실에 더는 있을 수가 없어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조퇴한 뒤 멍동에서 낮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1은 중학교 시절에 겪은 사건들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말했는데, 특히 학교가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큰 “위험”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즉, 제도로서 학교라는 공간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결국 그러한 공간을 떠나기(탈학교)도 한다.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제 애인이었는데 그 핸드폰 배경을 본 친구가 “야, 재 핸드폰 배경 여자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팔목 손목에 차고 있던 프라이드 밴글부터. 그런 게 학교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 “누나, 누나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람이죠.” 이러면서 “누나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었던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가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_ 연구참여자 1, 논바이너리 범성애자, 19세**

학교는 제 생활이고, 아무래도 많은 학생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좀 안 좋은 시간이 많았어서, 그 시간이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괜히 또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중학교 생활이랑 똑갈게 될까 봐. 그게 싫기도 했고. 어쨌든 학교라는 게 부모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괜히 내가 또 나섰다가 비밀 보장도 못 받을 거면서 괜히 나섰다가 (더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자퇴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_ 연구참여자 11,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18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 발언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

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학생인권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웃팅이나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 등이 학교폭력의 ‘피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번째 문제이며, 학부모 및 교사 등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개인에게 큰 부담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위(Wee)클래스와 같은 학교 안팎의 상담시설과 청소년 지원기관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차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후 성소수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등의 혐오발언을 상담에서 다시금 듣게 되기도 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청소년 상담·지원 체계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닌, 오히려 당장 필요한 지원과 도움에서 배제되는 위험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상담 윤리를 안 지키는 선생님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제가 사실 성적지향이 이렇다”고 말했더니, “그러진 말자,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_ 연구참여자 14, 논바이너리 호모플렉시블 바이섹슈얼, 23세

왜냐면은 저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가 아웃팅되고 엄마가 제 목을 졸랐던 거였는데, 그런 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담임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말하면) 안 되는구나.” \_ 면접참여자 25, 트랜스젠더 여성 범성애자, 22세

## 2) 드러내기: 용기와 포기

하지만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자신을 감추고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

아 “답답함”과 “포기”하는 마음으로 커밍아웃을 감행한다. 몇몇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오픈리(openly)’ 퀴어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가 오랜 고민 끝에 많은 것을 잃게 되어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존재론적인 결단이다. 실제로 커밍아웃을 시도한 연구참여자들은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끊기는 등 관계가 단절되거나 학교 공간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커밍아웃을 하고도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나의 안전지대가 된다. 연구참여자 9가 “그런 친구들이랑만 잘 지낸다”라고 표현한 “남은 사람들”은 성소수자 당사자이거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또래들이었다. 연구참여자 14는 성소수자 혐오와 폭력으로 탈가정·탈학교를 했는데, 그에게 사회적 관계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놓은 안전한 환경”과 “자신을 그냥 숨기는” 공간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졌다.

내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카톡에 올려버렸어요. 거울에다가 대고 돌이 뽀뽀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끊긴 사람도 꽤 되고. \_ 연구참여자 3,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폴리로맨틱 폴리섹슈얼, 17세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떠나갔다고 해야 하나? (성소수자를 못 받아들이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제 주변에는 저를 되게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냥 그런 친구들이랑만 잘 지내다 보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는 잘 신경을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_ 연구참여자 9,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팬섹슈얼, 13세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이나 언급들로 교사의 반응을 짐작해 보곤 한다. 연구참여자 10은 사회와 교사가 차별 주제 중 하나로 성소수자를 다룬 것을 보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물론 혐오발언, 아웃팅, 폭력 피해 등 자신이 직면하고 있

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 주는 관계를 필요로 했다. 선생님과 서로 커밍아웃한 연구참여자 16에게 성소수자 당사자인 교사의 존재는 시스젠더, 이성애 중심적인 학교 공간 안에서 “동지애”, “연대감”을 얻게 했다. ‘잘 살아 가고 있는’ 비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쉽게 보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선생님은 당사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사실상 이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공간은 성소수자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학년 때 사회 수행평가로 여러 차별에 대해서 할 때 그중에서 성소수자 차별도 있었거든요. ……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을 하시는 분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좀 당황하긴 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셨다고. \_ **연구참여자 10, 남성 동성애자, 18세**

(커밍아웃한) 기술가정 선생님은 “너희가 한 번 동아리를 만드는 게 어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의 우려 때문에 못 만들겠어요”라고 했더니, “그럼 담당 선생님을 배정을 받아서 해라”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어쨌든 용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끈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당기잖아 요. \_ **연구참여자 11,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18세**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써서 냈죠. 근데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1대 1 상담하잖아요. 보통 첫 학기 되면, ‘이쪽’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약간 알게 되면 웬지 모르는 그 뭐지 연대감이라고 해야 하나. 동지애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싹 트더라고요. \_ **연구참여자 16, 시스젠더 여성 호모플렉시블, 17세**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신의 지지 자원을 탐색하고 협상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힘겨운 노력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학교 공간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성소수자 동아리, 인권 동아리 등)을 만들거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교 공간 자체를 성소수자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포함된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가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혐오와 폭력에 질려 학교에서 아예 떠나기를 선택한 이들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 이르는 다양한 ‘숨기기’와 ‘드러내기’의 실천은 뒤에서 살펴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만들기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소속감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

## 5. 청소년 성소수자가 실천하는 안전공간

### 1) 온라인 커뮤니티: 처음 경험하는 환대

연구참여자들은 아웃팅, 혐오표현, 가족과의 갈등 등 성 정체성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어도 제도권의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 이를 해소하거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표현한 일부를 제외하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발언하는 것마저 조심스러워하면서 “소외감”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공간의 커뮤니티는 성 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물리적 장벽을 넘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트위터와 다음 카페 등을 통해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켰고, 또래 성소수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트위터 같이 쿼어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좀 더 나랑 생각이 맞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것 덕분에 제 생각도 좀 넓어지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_ **연구참여자 9,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팬섹슈얼, 13세**

보통 성소수자를 만나는 건 트위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상의 내밀한 얘기라든가, 성적지향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하는 공간. \_ **연구참여자 10, 남성 동성애자, 18세**

○○(청소년 성소수자 온라인 카페) 가입했을 때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소속감이 들었어요. \_ **연구참여자 14, 논바이너리 호모플렉시블 바이섹슈얼, 23세**

제 정체성이 무시 받았거나 쿼어에 관련해서 힘들 때, 또는 부모님 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이성애자 지인들한테는 털어놓기 힘든 것들을 (트위터에서는) 털어놓을 수 있고, 되게 제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_ **연구참여자 9,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팬섹슈얼, 13세**

청소년 성소수자가 온라인에서 다른 성소수자들과 교류하며 성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Bates, Hobman and Bell, 2020; Hiebert and Kortess-Miller, 2021; Lucero, 2017).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성소수자 단체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꽤 높은 진입장벽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어떠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 잘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여유 등에서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성 정체성에 대해 아직 고민하고 있거나, 아웃팅에 대한 불안이 큰 경우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과 가입과 탈퇴가 손쉬운 등 높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한다. 특히 성소수자 중에서도 더욱 비가시화된 비주류 정체성에 속하거나, 인종적으로도 소수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커뮤니티를 탐색하고는 한다(Lucero, 2017). 물론 온라인 공간의 이러한 특성이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공간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그러나 학교 교실이나 가정과 달리 내가 혐오발언을 ‘차단’하여 더 이상 접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관계들을 내가 ‘선택’하거나 그러한 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이 상대적인 안전하게 인식되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를 부르는 법적 이름과 성별, 정체성을 떠나 원하는 이름과 프로필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자신의 “젠더표현을 완전히 억압당”(연구참여자 24, 트랜스여성 범성애자, 23세)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곤 한다.

(SNS 계정 프로필에) 제가 트랜스남성이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발언에는 많이 예민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지를 해놨어요. \_ **연구참여자 7, FTM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21세**

성소수자로서의 정체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데서 오는 고립감이다. 나와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러한 외로움은 점차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커뮤니티 소속감으로 변화해 나갔다. 즉, 안전한 공간이라는 감각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용기를 낸 면접참여자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광장에 펼쳐진 수만여 명의 성소수자 행렬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연구참여자 11,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18세)는 느낌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쏟아지는 혐오발언에도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천국’과도 같은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 2) 인권 단체와 학내 동아리: 대안 공간 만들기

청소년 성소수자의 관계 맺기는 온라인이라는 경계 안에 한정되지 않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배타적인 공간적 구분이라기보다 상호촉진적인 관계에 가까웠다. 온라인에서 정체성에 대한 환대를 경험한 연구참여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안전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었다.

몇몇 면접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친목단체 또는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소속된 적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발적인 조직 대부분의 설립이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와 반대 세력이 물리적으로 대립한 이후로 대부분 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이 두 집단 사이를 가로막아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인천에서 개최된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적은 수의 성소수자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대 세력이 밀집하여 성소수자 참여자들이 몇 시간 동안 이동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으며, 행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집단적인 폭력과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혐오세력에 의해 강제로 깃발을 내린 채 행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참여자들은 “굴욕감, 수치심, 공포, 패배감”과도 같은 정동을 공유하였는데(허성원, 2019: 38),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역설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우리라도 뭔가 해보자”는 생산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며,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서로 지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 서울 퀴퍼 오시는 분들은 한 30명. 지역마다 퀴퍼 있으면 가고. 가입하셔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지역 모임 가고, 퀴퍼 같은 데에서 깃발에 모여서.



지지받는 거. 단톡방만 들어오셔도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 \_ 연구  
**참여자 1, 논바이너리 범성애자, 19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찾던 와중에 누가 리트윗한  
 홍보글을 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무작정. 면접을 보겠다 해가지고.  
 ……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 말고도 다른 퀴어  
 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니까. \_ 연구**참여자 5, 시**  
**스젠더 여성 팬로맨틱 호모섹슈얼, 19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  
 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  
 한 한 카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놀라운 점은 이 카페  
 의 운영 주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친연성을 드러내거나, 이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이 공간  
 을 전유하여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공간  
 실천이 가능한 까닭은 이미 온라인 공간에 형성된 청소년 성소수자의 커뮤니  
 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던 땃동의 아웃리치 프로그  
 램인 ‘땃동포차’ 일정에 맞추어, 인근 카페에 일종의 ‘안전한 놀이터’, “작은 퀴  
 퍼(퀴어퍼레이드)”를 스스로 마련한다. 인원이 많아지자 인근의 다른 카페를 일  
 일 대여하여 자체적인 ‘퀴어 카페’를 운영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모이는 카페에) 2번 정도 나가봤어요. 거기 나가보니까 트위터  
 에서 만나게 된 분들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거기에 오래는 못  
 있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퀴퍼 축소버전을 보는 느낌. \_ 연구**참여자 9, 논**  
**바이너리 팬로맨틱 팬섹슈얼, 13세**

지인이 소개해 줘가지고. “O’(종로구 인사동 카페를 지칭하는 단어)이라는 데가 있다. 첫째 주만 되면 사람들이 모인다. 1월 첫째 주 이렇게 가면 모인다.” (그래서) 처음 갔죠. 되게 작은 쿼퍼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만났죠. \_ 연구

**참여자 3,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폴리로맨틱 폴리섹슈얼, 17세**

이러한 공간이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마냥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와의 갈등이나 카페에서 모이는 청소년 성소수자 사이의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표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비슷한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는 또래들과 교류하는 데서 일종의 소속감과 안전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계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한 연구참여자의 말마따나 “구성원 자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공간 자체보다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연구참여자 19,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3세).

한편 학교나 청소년 기관 내부에서 안전공간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정혜숙(2021)은 서구와 비교해 경쟁적 입시 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체화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성소수자 친화적인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보다 이른 시기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대화와 관계를 경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들이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는 GSA(Gay-Straight Alliance)를 조직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공간 내에 성소수자의 안전공간을 명시적으로 마련한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퀴어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GSA가 성소수자의 비가시성에 도전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당사자들의 실천적인 참여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해 왔다(Bain and Podmore, 2020). 학교 공간은 학내 제도와 관계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무

엇이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더 많은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변화(Grozs, 2001; 퓨워, 2017: 10에서 재인용)”했다.

작년에 전주에서 퀴퍼(퀴어퍼레이드)가 처음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1회가 있었는데, 그때 (축제 부스를 낸) 학교 동아리를 보고 “아,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는) 저 학교를 가야겠다.” \_ **연구참여자 16, 시스젠더 여성 호모플렉시블, 18세**

(인권동아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주제도 다뤄지고,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캠페인 하는 것도 했었고. 학생 인권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 같은 거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학생 인권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도 했구요. 여성 차별에 대해서 탐구해 보면서 책 읽고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고 한번 뭐 이런 식. \_ **연구참여자 10, 남성 동성애자, 18세**

(청소년기관 안에서 성소수자 이슈로 활동하면서) 변하는 걸 너무 잘 느꼈어요. 오히려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인 말이 확 줄었어요. (중략)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선생님들이 그냥 들으러 오신 거죠. 어차피 강의를 하고 자리는 채워야 되니까. 그걸 들으러 오셨는데 모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맨 끝에 Q&A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도 너무 다들 질문하실 때,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말씀도 하시고. \_ **연구참여자 11, 젠더퀴어 남성애자/바이섹슈얼, 18세**

### 3) 대안 공간의 한계

이렇듯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퀴어문화축제 등을 접하며 얻은 안전함과 소속감, 자긍심과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참여하는 등의 실천을 이어갔

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공간이 학교나 청소년 지원기관 등 제도적인 수준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다양한 층위에서 대안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상호간의 믿음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일종의 소속감이다.

그러나 면접참여자들은 이러한 안전공간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한계로, 이러한 공간에서 형성되는 안전에 대한 감각이 다소 휘발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커뮤니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예컨대 연구참여자 1은 집과 학교에서 위기를 겪고 탈학교, 탈가정을 고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교통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구성한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한다. 또, 성소수자 상업 시설이나 단체 활동에 접근하는 게 용이해지는 20대와 10대라는 연령대는 큰 차이점을 만들고, 성인이 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대안적인 안전공간 만들기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가정 내에서는, 가족인데 막 때리고 욕하고 있어도 집 나가라 하나까. …… 솔직히 단체 자금 모으기? 어쨌든 회비를 걷더라도 청소년끼리고, 돈이 좀 딸리는 게 있죠.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막상 이렇게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단톡방, 카톡을 보면, 도움을 받을 공간이 정말 없어서. 명동 밖에는 없어서. 이런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_ 연구참여자 1, 논바이너리 범성애자, 19세

되게 부러웠어요. 아 왜 저런 건(청소년 성소수자 안전공간) 서울에만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왜 지방에는 저런 게 없지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그때 내가 왜 지방에 살지? 라는 그런 일종의 환멸? 뭐 그런 걸 느꼈었어요. …… 수도권에 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지방에 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간에 그런 괴리, 거리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_ 연구참여자 23, 남성 게이, 21세

특히 지역, 정체성 등 다양한 취약성이 교차할 때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떨어졌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성소수자 중에서도 더욱 비가시화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청소년들은 내부에서 또 다른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기도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견해 차이와 갈등이 심화되고, 일부에서 페미니스트 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적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즉, 성소수자들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모든 공간이 그 자체로 퀴어 안전공간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간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을 주의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려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이는 퀴어 안전공간이 단순히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이라는 느슨한 목적을 넘어서 다양한 교차성을 세심하게 고려하려는 참여자들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페미니즘 이슈가 한창 불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라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거기에서 또 다시 차단을 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결국 거기를 또 나왔어요. \_ **면접참여자 7, FTM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21세**

제가 범성애자라는 걸 처음 커밍아웃을 하면 되게 잘 받아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논바이너리로 커밍아웃을 하면, “내가 네 성적지향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성별 정체성은 못 이해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범성애자로 사는 거에 문제는 많이 없는데,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게 제 일상 속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_ **면접참여자 9,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팬섹슈얼, 13세**

코로나19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공간 만들기에 참여했던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서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Hiebert and Kortess-Miller, 2021; Fish et al.,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실시된 2020년에 수행되었고, 퀴어문화축제나 오프라인 지지집단, 친목 모임 등

이 열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운영된 시기였다. 특히 ‘안전한’ 집에 있으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은 집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을 고립시켰다(Jeffrey and Justin, 2020; Paler, 2020).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대안적인 안전공간의 경험이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일상과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 혹은 인권 동아리에 참여한 면접참여자들도 이러한 공동체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학내에서 다양한 차별과 시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구참여자 17은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지만, 생활기록부에 ‘성소수자’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될까 봐 “자원봉사 시간으로 절대 안 남기려고” 한다고 털어놓았다. 다시 말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교실이나 가정 등에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중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GSA를 비롯한 학교 내 퀴어 안전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이중적인 함의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일상 속에서 상징적이지 실질적인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학교가 가진 제도적·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결국, 대안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시도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특수한 공간이 아니라, 공적 영역 자체를 보다 포괄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 6. 나가며: 모두의 ‘퀴어한’ 공간을 향해

이 논문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협상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퀴

어 안전공간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학교는 공적인 동시에 섹슈얼리티와 무관한 공간으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인 위협을 마주하는 공간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의 비가시성을 활용하여 학교 공간에서 ‘숨기기’와 ‘드러내기’라는 때로는 이중적인 전략과 협상을 시도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내가 부정당하는 경험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곳을 찾게 된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온라인상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이다. SNS에서 또래 성소수자들과 맺는 친밀한 관계, 인터넷 카페에서 나누는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고민들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이상하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라는 일종의 소속감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안전감을 얻는다.

특히 수만여 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가 한 곳에 모이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당시 경험이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낙인찍힌 성소수자가 공적인 광장을 점유해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례와 유희 등을 통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에 도전하는 행사다(김현철, 2015; 조수미, 2019; 홍예륜, 2019). 때론 행인들의 혐오표현이나 과격한 대처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날의 도심 거리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안전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공동체 경험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겠구나”(연구참여자 4, 여성 레즈비언, 19세)라고 느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친목모임이나 인권활동 모임을 조직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연결하거나, 학교나 청소년 지원기관 내에 성소수자 동아리나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공간을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제도권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안전공간은 자원과 지속성 등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퀴어 안전공간

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은 “나는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퀴어 안전공간은 물리적인 차원의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만들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학교나 가족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안전감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물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만든,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인 공간이 하나의 정답은 아니다. 접근성의 한계도 있거니와, 학교 등 일상에서 펼쳐지는 괴롭힘과 혐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Fitzgerald and Grossman, 2018: 142). 모든 청소년을 환대하고 지원해야 할 청소년 복지체계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더라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평동’ 같이 제도권 밖에서 구성된 일부의 공간들이 위험을 피해 도망친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자체가 하나의 제도화된 이성애의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이성애화한다고 할 때(Pascoe, 2011; Payne and Smith, 2012), 공식적인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선 학교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고, 학교 공간 자체를 포용적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모두의 과제가 남아있다. 즉, 퀴어 안전공간은 궁극적으로 이질적 타자로서의 퀴어를 단순히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들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을 질문하고, 이러한 ‘위험한’ 정상성을 해체하는 더 커다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브라운-브라운-립, 2018; 93).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GSA 등의 활동은 이러한 퀴어 안전공간 실천의 중요한 시작점 중 하나다. 일부 연구참여자를 비롯해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 공간이 소수자를 포용하게끔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퀴어 안전공간이 전반적인 관계와 문화의 재편, 그리고 소속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만들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은 퀴어 안전공간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 교육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심리상담 등 각 영역 내에서



의 고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내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전사회적인 노력은 이러한 실천들에 손을 맞잡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2.05.10.

심사완료일: 2022.05.25.

계재확정일: 2022.06.03.

최종원고접수일: 2022.06.05.

**Abstract**

**LGBTQ Youth and Safe Space:  
Alternative Spaces Created by the Excluded**

Seong-Jo Jeong, Yonglim Choung

We explore the meaning of queer safe space by focusing on how LGBTQ youth who are excluded from school discover, experience, and attempt to build a new safe space outside of school. In South Korean society, LGBTQ youth routinely experience hate speech,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t classroom. They also repeatedly experience hateful reaction from the resources they have access to, such as teachers, counseling programs, and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s,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 can not trust or rely on the school. Whereas the LGBTQ community outside the school can function as a safe space that provides a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networks to LGBTQ youth.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 with 25 LGBTQ youth and analyzes their experiences at schools, online and offline LGBTQ communities. Specifically, we analyze how LGBTQ youth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t school, how they discover various safe spaces outside of school and how these spaces are signified, and what kind of practice they continue to build alternative safe spaces. In conclusion, we reveal that queer safe space is closely related to community bui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xclusion and belonging, and ultimately argue that overall public areas, including schools, should be re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queer safe spaces.

**Keywords: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LGBTQ Youth, School, Sense of Belonging, Queer Safe Space, Community Building**

참고문헌

강병철·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적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2호, 99~128쪽.

강오름. 2015.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현대 한국의 성적소수자와 공간」. 『비교문화연구』. 제21권, 제1호, 5~50쪽.

김보명. 2020.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1호, 83~117쪽.

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1호, 203~230쪽.

김시은. 2017.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공익과인권』. 제17권, 3~47쪽.

김지은. 2020. 「대학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학생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4권, 제1호, 155~176쪽.

김지혜. 2016.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두를 위한 교육」.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김찬미·이지하·곽원준. 2020.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아웃팅 경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231~255쪽.

김현철. 2015.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51호, 12~62쪽.

김현철. 2021. 「감금지리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공간과사회』. 제31권, 3호, 91~135쪽.

남수정. 2019. 「재생통치와 타자공간 생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로 게이 게토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4권, 제3호, 5~52쪽.

박수경. 2022. 「학교는 여학생에게 어떻게 안전공간으로 인식되는가?: 관계적 환경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80~98쪽.

박지영. 2020. 「성소수자 청소년 A는 왜 자살했는가?: 질적 심리부검을 통한 학급 내 집단괴롭힘과 A의 행동결정과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22권, 제4호, 1~36쪽.

손소연·이지하. 2016.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2호, 233~256쪽.

시우. 2015. 「혐오 없이, 혐오 앞에서, 혐오와 더불어: 한국 LGBT/퀴어 상황을 기록하는 노트」. 『문화과학』. 제84호, 288~305쪽.

신유진. 2021. 「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공간과사회』. 제31권, 제3호. pp.48~90.

- 브라운, 캐스·개빈 브라운-제이슨 림. 2018. 『섹슈얼리티 지리학: 페미니즘과 퀴어 지리학의 이론, 실천, 정치』. 시우·한빛나·김현철·정규리 옮김. 서울: 이매진.
- 알튀세르, 루이. 2007. 『재생산에 대하여』. 김용권 옮김. 서울: 동문선.
- 윌리스, 폴. 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김찬호·김영훈 옮김.
- 아메드, 사라. 2019. 『행복의 약속』. 성정혜·이경란 옮김. 후마니타스.
- 이성원·연구진. 2020.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2권, 제2호, 639~666쪽.
- 이창환·조현민. 2020.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종로 3가 게이 공간의 변화와 대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 395~408쪽.
- 임유경. 2016. 「교회공간 퀴어화하기: 성소수자 교회에서의 퀴어 농담」. 『비교문화연구』. 제22권, 제2호, 81~122쪽.
- 정경운. 2002. 「한국 여성성적소수자 공간 기획에 대한 연구: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제1호, 9~49쪽.
- 정성조·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문화와사회』. 제26권, 제3호, 83~145쪽.
- 정혜숙. 2021. 「한국 성소수자 청년의 정체체성형성 경험: Eliason and Schope(2007)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5권, 제3호, 31~60쪽.
- 조수미. 2019. 「퀴어문화축제 공간의 상징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제52권, 제3호, 209~272쪽.
- 주재홍. 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1호, 175~215쪽.
- 푸코, 미셸. 2010.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파주: 나남.
- 퓨워, 너털. 2017. 『공간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김미덕 옮김. 서울: 현실문화.
- 플릭, 우베. 2011. 『질적 연구방법』. 홍경화·허문경·최인호·최금진·임은미 옮김. 파주: 한울.
-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이태원 소방서 골목 사례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 253~269쪽.
- 허성원. 2019.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정동정치: 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제27권, 제3호, 7~48쪽.
- 홍예륜. 2019.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제29권, 제2호, 96~133쪽.
- Bain, A. L., and Podmore, J. A. 2020. "Challenging Heteronormativity in Suburban High Schools Through "Surplus Visibility": Gay-Straight Alliances in the Vancouver City-region." *Gender, Place & Culture*, Vol.27, No.9, pp.1223~1246.
- Bates, A., Hobman, T., and Bell, B. T. 2020. "Let Me Do What I Please With It.. Don't

- Decide My Identity For Me”: LGBTQ+ Youth Experiences of Social Media in Narrative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35, No.1, pp.51~83.
- Beasy, K., Grant, R., and Emery, S. 2021. “Multiple Dimensions of Safe Space for LGBTQ Students: School Staff Perceptions.” *Sex Education*, pp.1-14.
- Bell, D., and Valentine, G. (Eds.). 1995. *Mapping Desire: Geographies of Sexualities*. Psychology Press.
- Berlant, L., and Warner, M. 1998. “Sex in Public.” *Critical Inquiry*, Vol.24, No.2, pp.547~566.
- Bondi, L., and Rose, D. 2003. “Constructing Gender, Constructing the Urban: A Review of Anglo-American Feminist Urban Geography.”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10, No.3, pp.229~245.
- DeVito, M. A., Walker, A. M., and Birnholtz, J. 2018. “‘Too Gay for Facebook’ Presenting LGBTQ+ Identity Throughout the Personal Social Media Ecosystem.”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Vol.2(CSCW), pp.1~23.
- Dragowski, E. A., McCabe, P. C., and Rubinson, F. 2016. “Educators’ Reports on Incidence of Harassment and Advocacy toward LGBTQ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53, No.2, pp.127~142.
- Fish, J. N., McInroy, L. B., Pacey, M. S., Williams, N. D., Henderson, S., Levine, D. S., and Edsall, R. N. 2020. “‘I’m Kinda Stuck at Home with Unsupportive Parents Right Now’: LGBTQ Youths’ Experiences with COVID-19 and the Importance of Online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67, No.3, pp.450~452.
- Grant, R., K. Beasy, S. Emery, and B. Coleman. 2018. “Beyond ‘Safety’: Teachers and School Staff Approaches to LGBTI-inclusion in Tasman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25, No.3, pp.394~410.
- Hartal, G. 2018. “Fragile Subjectivities: Constructing Queer Safe Spaces.” *Social & Cultural Geography*, Vol.19, No.8, pp.1053~1072.
- Hiebert, A., and Kortess-Miller, K. 2021. “Finding Home in Online Community: Exploring TikTok as a Support for Gender and Sexual Minority Youth throughout COVID-19.” *Journal of LGBT Youth*, pp.1~18.
- Jones, Eva M. 2018. *The Kids Are Queer: The Rise of Post Millennial American Queer Identification*. i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Americans at Risk: Problems and Solutions*. Praeger.
- Lapointe, A. A. 2015. “Standing ‘Straight’ Up to Homophobia: Straight Allies’

- Involvement in GSAs." *Journal of LGBT Youth*, Vol.12, No.2, pp.144~169.
- Lee, C. 2002. "The Impact of Belonging to a High school Gay/straight Alliance." *The High School Journal*, Vol.85, No.3, pp.13~26.
- Lucero, L. 2017. "Safe Spaces in Online Places: Social Media and LGBTQ Youth."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Vol.9, No.2, pp.117~128
- McDowell, L.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 No.1, pp.59~72.
- McInroy, L. B., and Craig, S. L. 2015. "Transgender Representation in Offline and Online Media: LGBTQ Youth Perspective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25, No.6, pp.606~617.
- Palkki, J., and Caldwell, P. 2018. "'We Are Often Invisible': A Survey on Safe Space for LGBTQ Students in Secondary School Choral Programs."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Vol.40, No.1, pp.28~49.
- Pascoe, C. J. 2011. *Dude, You're a Fa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yne, E., and Smith, M. 2012. "Rethinking Safe Schools Approaches for LGBTQ Students: Changing the Questions We Ask." *Multicultural Perspectives*, Vol.14, No.4, pp.187-193.
- Robinson, K. H., and Ferfolja, T. 2002. "A Reflection of Resistance: Discourses of Heterosexism and Homophobia in Teacher Training Classrooms."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Vol.14, No.2, pp.55~64.
- Ramussen, M. L. 2006. *Becoming Subjects: Sexuality and Secondary Schooling*. New York: Routledge.
- Sadowski, M. 2016. "More Than a Safe Space." *Educational leadership*, Vol.74, No.1, pp.33~36.
- Schmitz, R. M., Coley, J. S., Thomas, C., and Ramirez, A. 2020. "The Cyber Power of Marginalized Identities: Intersectional Strategies of Online LGBTQ+ Latinx Activism." *Feminist Media Studies*, pp.1~20.
- Shannon, B. 2016. "Comprehensive for Who? Neoliberal Directives in Australian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the Erasure of GLBTIQ Identity." *Sex Education* Vol.16, No.6, pp.573~585.
- Skeggs, B. 1999. "Matter Out of Place: Visibility and Sexualities in Leisure Spaces." *Leisure Studies*, Vol.18, No.3, pp.213~232.
- Stengel, B. S. 2010. "The Complex Case of Fear and Safe Space."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Vol.29, No.6, pp.523~540.
- Warner, M. 1999. *The Trouble with Normal: Sex, Politics, and the Ethics of Queer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기사**

경향신문. 2021.1.25. “서울 학생인권의 날 앞두고…여전히 ‘성소수자 보호’가 ‘동성애 조장’이라는 이  
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1251459001#c2b>  
(검색일: 2022년 4월 15일).

경향신문. 2021.10.21.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 성소수자 직무교육 ‘0건’…상당실적도 민간보다  
저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0211650001>  
(검색일: 2022년 4월 15일).

서울신문. 2021.12.21.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https://www.seoul.co.kr/Special  
Edition/transyouth/](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transyouth/)(검색일: 2022년 4월 15일).

여성신문. 2017.12.13. “차별과 혐오로 물든 교실, 소년들을 망친다”. [https://www.womennew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30](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30)(검색일: 2022년 4월 15일).

Jones, Jeffrey M. 2022.2.17. “LGBT Identification in U.S. Ticks Up to 7.1%.”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389792/lgbt-identification-ticks-up.aspx>(검색일:  
2022년 4월 15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2021.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미간행 보고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 2016. 『Q로 만드는 울타리: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  
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 2021.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미간행 보고서.

SOGI법정책연구회.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욕구조사』. 미간행 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Jeffry, Acaba, and Bionat, Justin Francis, 2020, “#CopingWithCOVID: The Well-being of  
LGBTIQ Adolescents and You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sia and the  
Pacific.” A Report from YVC: Youth Voices Count.

Kosciw, J. G., Clark, C. M., Truong, N. L., and Zongrone, A. D. 2020. *The 2019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A Report from GLSEN: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